

Issue Comment

2018. 7. 26

자동차산업

미-EU 무역협상, 공포 해소 위한 일보전진



자동차/부품/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098-6690
Joonsung.kim@meritz.co.kr

트럼프-융커, 무역갈등 해소 위한 무관세 추진 합의

지난 25일 (미국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갈등 해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발표. 합의된 주요 내용은 비자동차 제품에 대해 Zero 관세, Zero 비관세장벽, Zero 보조금.

양 측 모두 협상 결과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 기대감을 표시. 트럼프는 "Very big day for free and fair trade. We are starting the negotiation right now but we know very much where it's going"이라 언급했으며, 융커 또한 "Good, Constructive meeting"이라고 화답. 트럼프는 유럽으로의 대규모 LNG 및 대두 수출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강조.

자동차 산업 무역전쟁 위협 해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증가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무역전쟁의 중심 자동차산업에 대한 관세 이슈는 양측간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는 이 날 발표되지 않았음. 그러나 융커는 "I had one intention today, to make a deal, and we made a deal. We have a number of areas on which to work together"이라며 문제해결의 기대감을 높였고, "We had agreed to reassess national security barriers in due time"라며 Section 232와 관련된 무역재제 해소를 위한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고 언급.

이번 협상은 EU의 양보를 통한 정면충돌 회피이며, 미국의 전략적 성공이라고 판단. 유럽의 아킬레스건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와 관련된 협상 또한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상호 동일관세로 전환 (현재 미국 수입차 유럽 관세 10%, 유럽 수입차 미국 관세 2.5%)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우려 해소 가시성 확대

무역재제 대상 양대 축 중 하나인 유럽과의 일보전진을 통해 전방위적 자동차 산업 Section 232 적용 우려는 축소. 또한 이번 무역협상에서 확인했듯 트럼프가 원하는 바는 양측간 동일한 Zero 관세. 이미 한미 FTA 재협상을 마무리하고, 상호 Zero 관세를 적용 중인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트럼프의 관세 공세의 언급대상이 된 바 없었음. 지난 19일 공청회에서 보여진 미국 대내적 반대기조와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GM과 Ford의 부진 한 2Q18 실적상황 또한 Section 232의 자동차산업 적용 배제 가시성을 확대.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2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7월 2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2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